

“5·18 등 민주화운동 펴헤·왜곡 더는 안돼”

광주·전남 등 4개지역 기자협회, 한국 현대사 왜곡 방지 협약

4·3사건,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한국 현대사 아픔 공유...역사 바로세우기 합심 “악의적인 조작·가짜뉴스 배격 적극 나설 것”

광주·전남, 제주, 경남·울산, 대구·경북 등 전국 4개 지역기자협회가 한국 현대사 민주화운동 펴헤와 왜곡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4·3사건,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2·28민주화운동, 3·15의거, 부마항쟁 등 굵직한 민주화운동을 안고 있는 지역 기자협회가 연대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공유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최권일), 제주도가기자협회(회장 박정섭), 경남·울산기자협회(회장 조윤제), 대구·경북기자협회(회장 진식)는 지난 25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현대사 왜곡 방지를 위한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과 고영권 제주도 정부부지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4개 지역 기자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취재·보도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에 기자협회 회원 등을 초청해 역사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현대사 취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동 기획취재, 현지 취재지원 등이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나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실행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4개 지역 기자협회는 특히 최근 5·18을 펴헤하는 내용의 만평을 실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구 매일신문의 만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제주4·3과 광주5·18의 진실은 각각 70년, 40년 넘도록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



왼쪽부터 최권일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조윤제 경남·울산기자협회장, 진식 대구·경북기자협회장, 박정섭 제주도가기자협회장.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

는 등 아직까지 역사의 부정과 왜곡이 존재한다”고 꼬집으며 “전국의 기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진실을 알리는 책임과 의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4개 지역 기자협회를 대표해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는 수많은 희생으로 결실 맺은 민주화를 온전하게 지켜내 후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민주화운동 당시 연대를 통해 여전한 역사 왜곡과 펴헤에 경종을 울리고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총장장학회, 동구 대학생 40명에 장학금 8000만원



총장장학회(이사장 김백규)가 최근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금 8000만원을 광주 동구(청장 임택)에 쾌척했다. (사진) 장학금은 김백규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마련했으며, 동구 지역 대학생 4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전달됐다. 총장장학회는 올해까지 3년째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총장공의 고귀한 뜻과 애국심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장학회를 설립했다”면서 “총장공 김덕령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인재들이 자랑스런 지역사회 일꾼으로,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공 김덕령 장군의 시호를 단 총장장학회는 지난 2018년 9월 김덕령 장군의 11대손인 김 이사장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구 품암주민자치회 임원들, 미얀마 응원 성금 전달



광주 서구 품암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맞서는 미얀마인들을 응원하고자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은 성금 51만 8000원을 서구에 전달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학숙,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입사생 정신건강 증진 도모

전남도립 전남학숙(관장 김석원)과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환)는 지난 26일 전남학숙 입사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겪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치료를 함으로써 전남학숙 입사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

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 안전망 구축, 정신건강 기능 향상을 위한 집단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운영, 정신건강 증진 관련 의료비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김석원 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협약의 의미를 넘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사회에 진출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춘진 aT사장

유엔거버넌스센터 방문



안을 모색했다.

김춘진(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26일 유엔거버넌스센터를 방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사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거버넌스(협치)와 국내외 협력방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만화 ‘소년007’ ‘강가딘’ 김삼 작가 별세

만화 ‘소년007’, ‘강가딘’ 등으로 알려진 김삼(본명 이정래·사진) 작가가 지난 13일 향년 80세로 별세했다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6일 밝혔다.

김 작가는 1941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으며 1965년 청소년 잡지인 ‘소년 동아일보’에 만화 ‘소년007’을 연재해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또 1976년 검은색 개를 의인화한 만화 ‘강



원에 기증했다.

가딘’을 그렸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대물’, ‘이창’, ‘야행’ 등 성인용 만화를 그렸다.

김 작가 유족은 따로 부고를 내지 않는 대신 고인의 만화 원화와 수첩 등 관련 유품을 진흥원에 기증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0 불면해도 괜찮아 55 한국의 인류유산	00 달이 뜨는 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유 별의여신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행복설계 알짜배기
⑬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극 라이브(재)	20 헬로키티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45 닥터 365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특별대담 행복이란 무엇인가		25 서울시정 보결선거 후보자 토론회	00 뉴스브리핑
⑮	00 남도스페셜(재)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특선 다큐 오카방고 대홍수(재) 50 다큐엔터리 3일(재)	30 기분 좋은 날(재)	0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재) 55 닥터 365
⑯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구해줘! 홈즈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⑰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⑱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⑲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⑳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㉑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2021 스페셜 토크쇼 <Let's BTS>	40 쓰리박 스페셜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㉒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0 나이트라인
㉓	10 나의 살던 고향은(재) 15 다큐 인사이트(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통합뉴스룸 ET	15 스포츠 매거진 5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10 열린 TV 시청자세상(재) 40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샤와 곰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5 포텐독
06:50 다큐 오늘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냉정고 나라, 코코몽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07:15 미니특급대 슈퍼공룡파워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30 두다다쿵	14:10 당신의 문해력	19:30 자이언트 펭TV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19:45 다큐영화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명 유치원	15:15 클레사 e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출동! 슈퍼왕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두근두근 타이완 -하오치! 미식천국을 가다>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21:30 한국기행
09:00 뽕뽕뽕 뽕뽕로	16:0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봄이 말하기를 1부 제주에서 인생 2막>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마샤와 노래해요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2:45 야생의 지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9일(음 2월 17일 丙子)	☎ 010-9790-8237
	36년생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48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자. 60년생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72년생 측면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 가면 그만이다. 84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96년생 평소 예상했던 바대로 펼쳐지겠다. 행운의 숫자 : 34, 99	
	37년생 일관성이 있었다면 다지고 있는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다. 49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이다. 61년생 앞만 보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 73년생 정산되지 않은 것은 소모적인 것이다. 85년생 희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97년생 구제되지 않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행운의 숫자 : 20, 80	
	38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50년생 정성으로써 도움을 다 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62년생 공허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74년생 순리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 86년생 배려에 깊이 감사하게 되리라. 98년생 설계를 잘 해야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88, 56	
	39년생 불잡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이다. 51년생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걸려 있다. 63년생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싹트리라. 75년생 강력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보겠다. 87년생 의외의 일이 생겨서 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99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5, 79	
	40년생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52년생 한꺼번에 처리하자. 64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76년생 도모하던 바는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88년생 막연하다면 무의미하다. 00년생 희소식을 접하는 행운이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5, 50	
	41년생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차질을 빚게 된다. 53년생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서 조심스런 행동을 해야겠다. 65년생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77년생 변경의 손과 함께하고 있다. 89년생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보자. 01년생 가까스로 반전 되어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4, 66	
	42년생 협조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54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66년생 방치 했다가는 갈수록 악화 될 수도 있느니라. 78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90년생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면 해안이 생길 것이다. 02년생 길서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낀다. 행운의 숫자 : 18, 92	
	43년생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할 뿐이다. 55년생 제반사가 양호하게 시작 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리라. 67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가 되었다. 79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91년생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03년생 과잉 신뢰는 진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77	
	32년생 대등소이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44년생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56년생 가까운 이와 인연이 깊사도 연결되겠다. 68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80년생 자주 빛나간 형태를 따르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 92년생 유난히 마음을 끄는 바가 있을 것이니 꼭 짚어보라. 행운의 숫자 : 46, 67	
	33년생 해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판세 이니라. 45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 될 것이다. 57년생 역행할 일이 보이니 매사에 주의해야겠다. 69년생 쥐구멍에도 발을 날이 있느니라. 81년생 일관된 면모와 지속적인 실행이 순조로움을 불러 올 것이다. 93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팔이 이루어라. 행운의 숫자 : 39, 76	
	34년생 실제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46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 된다. 58년생 실질적인 관계를 성립 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70년생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를 파악 하자. 82년생 불면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94년생 작심했던 대로 추진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3, 61	
	35년생 실익이 없다면 가급적 빨리 선회하는 것이 옳다. 47년생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59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71년생 소모적이라면 한 시 바빠 벗어나야 할 것이다. 83년생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95년생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06, 93	